

보도 자료 Press Release

## 기체 첫 장파 개인전 <<특성 없는 여자>> 개최

전시기간 2022.6.09 (목) - 7.23 (토)  
전시장소 기체  
작가 장파



장파 개인전 <특성 없는 여자> 전시 전경

### KICHE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5가길 20  
www.gallerykiche.com

문의  
이현정 T. 02-533-3415 / E. info@gallerykiche.com

고화질 이미지는 웹하드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웹하드 ID: gallerykiche / PW: kiche

보도자료 내 모든 이미지와 글은 세부 정보 및 저작권 정보를 꼭 명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ourtesy of KICHE © Jang pa





**Triangle of Lamentation**  
2022  
Oil on canvas  
259.1 x 193.9 cm



# KICHE



**Mama series\_1**  
2022  
Oil On canvas  
130,3 x 130,3 cm

- '여성의 주체성'을 일관되게 탐구해온 장파 작가 개인전 개최
- '여성'이라는 범주 자체를 교란하는 감각체계와 그에 걸 맞는 회화의 표면, 질감에 대한 고민이 담긴 신작회화 20여점

## 전시 소개

기체는 장파 개인전 <<특성 없는 여자>>전을 6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갖는다. 기체와 여는 첫 개인전에서 작가는 2015년부터 시작된 <Lady X Series>를 포함해 새롭게 선보이는 <Mama series>, <A Common Woman Series>, <Man from Earth>, <The Jewels> 등의 신작 회화 20여점을 소개한다. 전시는 로베르토 무질(1880~1942)의 미완성 소설 『특성 없는 남자』(1930-42)를 그 출발점으로 삼는다. 소설의 주인공 울리히가 스스로 '특성 없는 남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하는데, 작가는 특성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모든 특성을 자기화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장파 작업 전반에 걸쳐 '여성의 주체성'은 중요한 키워드다. 그는 남성 중심의 위계적 구조에서 부정적으로 여겨진 '여성적 특성'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긍정성을 부여한다. 또 '여성적인 것'의 탐구에서 시작하지만,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여성의 관점을 보편화하고 '여성'이라는 범주 자체를 교란하는 감각체계와 그에 걸 맞는 회화의 표면, 질감을 고민한다. 아울러 고전 조각상을 모티브로 삼은 여성/형상 시리즈(2017) 이후 미술사 혹은 문화사적 도상을 적극 가져와 그런 작가적 관심을 더 구체화하고 있다.

높이 2미터 중반의 대형 회화인 <Triangle of Lamentation>는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지는 예수를 모티브로 하는 미켈란젤로의 대리석 조각 <피에타 반디니 Pietà Bandini>를, 중형의 <A Common Woman Series>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도상을 인용한 것이다. 앞서의 맥락에서 작가의 '여성성'에 대한 관심이 개인을 넘어 보다 보편적인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게 한다. 다른 한 편으로 회화적 질감이 한층 강조되고 있는 <Mama Series>의 내장, 눈알, 태아 등이 한 데 뭉치거나 뒤섞여 쏟아지고 있는 장면은 기괴한 아름다움을 극대화한다.

## 장파

(b.1981)

장파 작가는 서울대학교 서양화과 및 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서양화과 석사를 졸업했다. 개인전은 전시공간(2022, 서울), 인천아트 플랫폼 창고갤러리(2020, 인천), 두산 갤러리 서울(2018, 서울), 두산 갤러리(2017, 뉴욕), 소마 미술관(2016, 서울), 메이크샵 아트스페이스(2015, 파주), 갤러리 잔다리(2015, 서울), Tv12 gallery(2013, 서울), OCI미술관(2011, 서울), 그리고 예술공간 HUT(2009, 서울)에서 열었다. 주요 그룹전으로는 D/P(2020, 서울), 탈영역 우정국(2019, 서울), 서울대학교 미술관(2018, 서울), 아트스페이스 풀(2017, 서울), 서울시립미술관(2015, 서울), 두산갤러리(2015, 서울), OCI미술관(2015, 서울), 블루메 미술관(2015, 파주), 소마 미술관(2011, 서울) 등이 있다. 현재,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 있으며, 주요 저서(공동저서)로 『화가의 말』(2020)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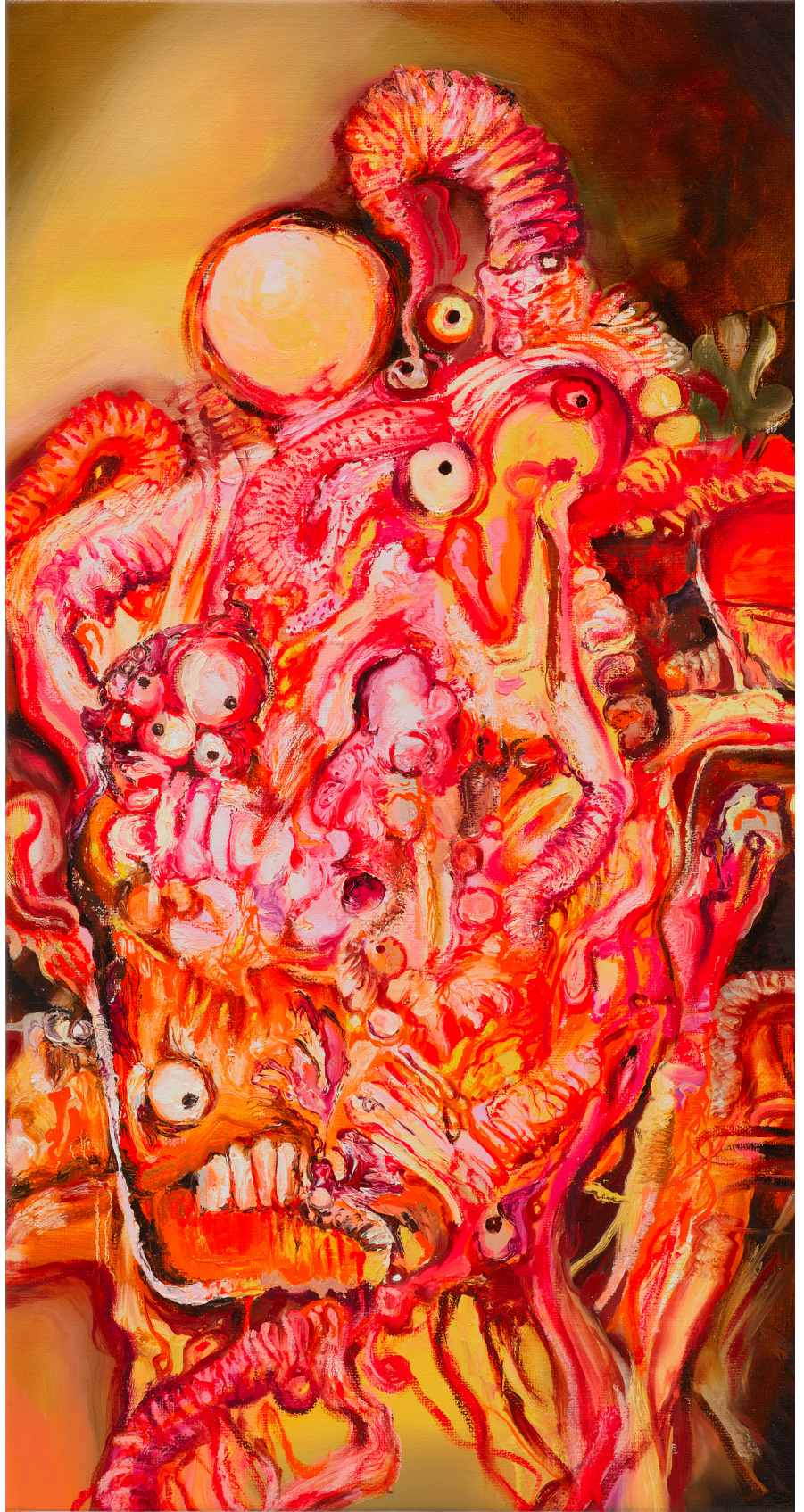




**Lady X series**  
2022  
Oil on canvas  
193.9 x 130.3 cm



# KICHE



**Mama series\_2**  
2022  
Oil On canvas  
94.2 x 49.2 cm





장파 개인전 <특성 없는 여자> 전시 전경





**A Common Woman series\_1**

2022

Oil on canvas

162.2 x 130.3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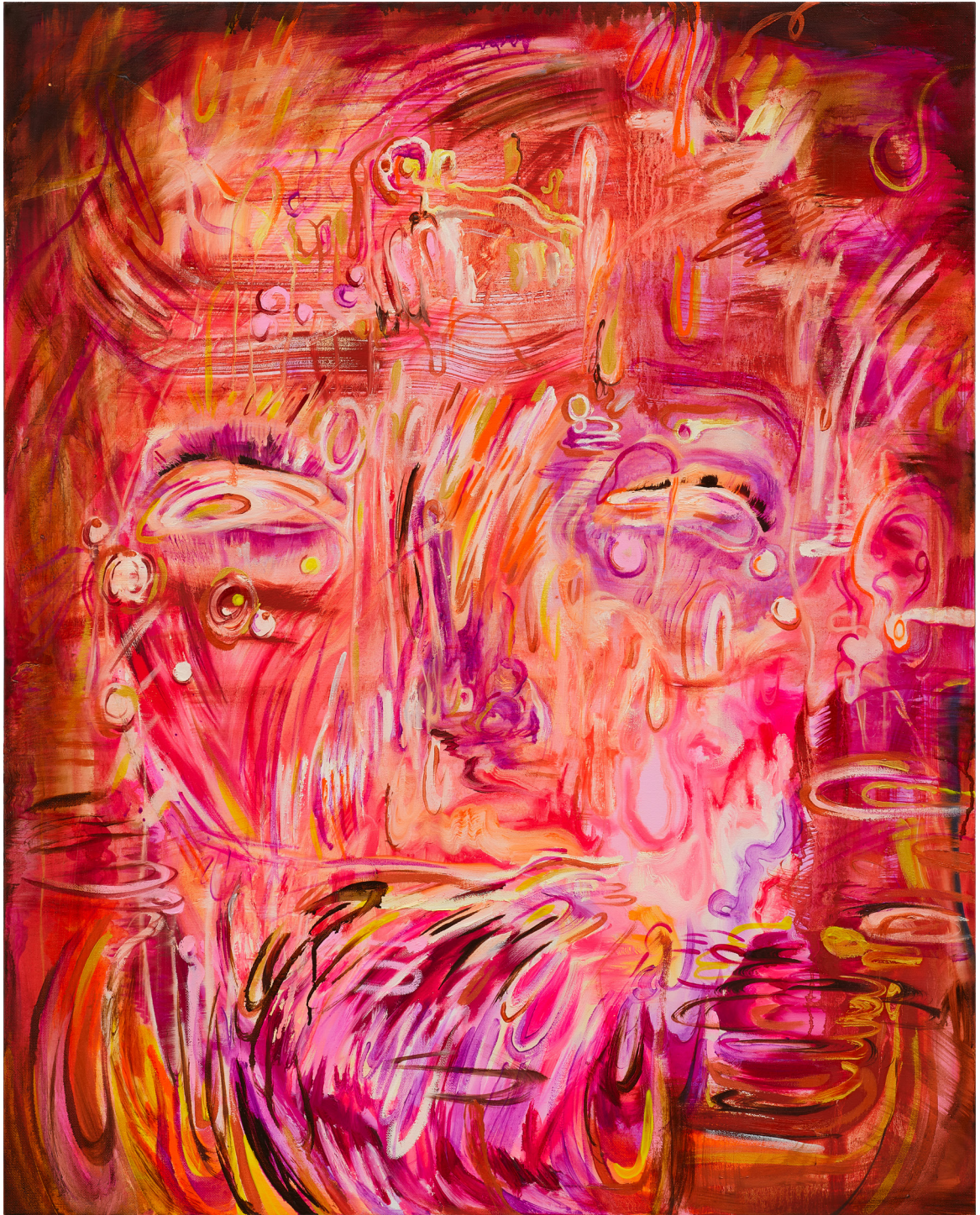


**Man from Earth\_1**  
2022  
Oil On canvas  
60.6 x 50 cm



**Mama series\_3**  
2022  
Oil On canvas  
60.6 x 50 cm





**Man from earth\_2**

2022

Acrylic, golden leaf, and mixed media  
on shaped canvas

74 x 55 cm





장파 개인전 <특성 없는 여자> 전시 전경





**A Woman without Qualites\_1**

2022

Oil on canvas

72.5 x 49.7 cm





**The Jewels\_3**  
2022  
Acrylic, golden leaf, and  
mixed media  
on shaped canvas  
74 x 55 cm





**The Jewels\_1,**  
2022  
Acrylic, golden leaf, and  
mixed media  
on shaped canvas  
74 x 55 cm

관람시간  
화 - 토 11:00 ~18:00

**KICHE**